

문제1.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높은 순서는 (가),(라),(다),(나)이다.

우선, 제시문(가)는 개개인에게 합리적인 선택원칙을 사회로 확장한다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가장 높다. 개인은 다른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자신의 욕구처럼 동일화하고 계산하여 개 개인의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사회규칙을 조정한다. 그리고 이 규칙에 의해 욕구가 분배될 때 사회 전체의 만족도 극대화된다. 즉, 개인의 이익이 증대될수록 사회의 이익도 증대되는 것이다.

제시문(라)역시 도덕적이고 선한 개인들이 모이면 그 집단도 도덕적이라는 점에서 개인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다양한 욕구를 가진 개개인들의 이익 충족을 중시하는 제시문(가)와 달리, 제시문(라)는 공유된 개념을 가진 개인들이 공동의 의지를 실현하고 공동체의 화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제시문(가)보다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이 사회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제시문(가),(라)와 달리, 제시문(다),(나)는 개인인 사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선한 개인들 사이에 공동체적 유대가 생기면 선한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제시문(라)와 달리, 제시문(다)는 개인이 도덕적일지라도 그가 속한 사회는 비도덕적이라고 말한다. 개인의 도덕성이 사회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난다.

더 나아가서, 제시문(라)는 오히려 개인이 사회의 영향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 개인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각 개인은 자신이 속한 여러 집단들로부터 많은 기대와 의무를 부여받고 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과 특수성을 확립한다. 이는 개인이 사회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하며, 개인이 철저히 사회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문제2.

사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들이 충돌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문(가)는 완벽하게 합리적인 개인이 될 것을 주장할 것이다. 개 개인이 완전히 합리적이라면 그들은 공감과 상상을 통해 타인의 욕구를 자신의 욕구처럼 느끼고 이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이러한 '공평한 관망자'의 관점을 지닌다면, 개인들이 서로의 욕구의 강도를 확인하고 각 욕구들의 비중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들의 충돌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제시문(나)에 따르면, 개 개인의 다양한 요구들이 충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바로 조성해야 한다. 개인의 정체성은 국가,민족,단체,도시,가족 등 그를 둘러싼 다양한 사회로부터 형성되며, 다양한 사회만큼이나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존재하게 된다. 따라서, 국가,도시,가족처럼 서로 다른 층위의 사회가 개인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해야 사회적 정체성을 지닌 개인들의 요구도 상충하지 않을 것이다.

제시문(나)의 방법이 다양한 요구의 충돌을 예방하는 성격이라면, 제시문(다)는 강력한 사회 세력을 만들어 요구들의 충돌을 억제하는 방법을 제시할 것이다. 제시문(다)에 따르면 개 개인은 도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배려와 동정을 통해 개인의 욕구끼리 충돌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집단이나 사회는 비도덕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발적이고 도덕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집단이나 사회를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세력을 통해 집단의 욕구끼리 충돌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

반면, 제시문(라)에 따르면, 사회 구성원들의 요구가 상충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이 도덕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제시문(라)는 시민들이 도덕적이지 않으면 시민적 화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시민적 화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도덕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원 사이에 다양한 요구들이 충돌한다는 것은 아직 사회의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고, 사회 구성원들이 도덕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개 개인이 선택되면 개인간의 요구 충돌은 물론 집단이나 사회간의 요구 충돌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